해양수산부 | 동정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6. 11. 13.(금)

‘농어민과의 대화’ 계기, 돔류 업계의 현장 목소리 듣는다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CPTPP 가입 시 돔류 업계에 미칠 영향과 현장의 우려사항을 청취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 논의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13일(금) 부산에서 돔류 양식 어업인과 어선 어업인 등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한 현장의 우려 사항을 듣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CPTPP 가입 시 시장 개방 영향을 품목별로 면밀히 살펴보고, 품목별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돔류는 참돔을 중심으로 생산되는 양식업과 참돔·옥돔·감성돔 등 다양한 어종을 생산하는 어선 어업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시장 개방이 국내 생산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어종과 생산 방식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수입산과의 가격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양식 참돔의 생산비 부담, 자연산 돔류의 어획량 변동과 유통·판매 여건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분석할 때 양식업과 어선 어업의 생산 구조 차이를 고려하여 국산 돔류의 생산비 절감과 판로 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눴다.

황 장관은 “돔류는 양식업과 어선 어업의 두 가지 생산 방식으로 생산되는 만큼, 시장 개방의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오늘 현장에서 주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도윤정 (051-773-5420)
		담당자	사무관	박지수 (051-773-542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대체불가 대한민국 |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